전주 연꽃문화제, 불교 공연으로 장엄

7월 16~17일 전주 덕진공원서 봉행

불교연합합창단 등 공연 호평
연등제작 비롯 전통문화체험
금산사 등서 스님들도 참가해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연합합창단이 연꽃문화제에서 음성공양을 올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전주 연꽃문화제가 3년만에 재개됐다. (사)우리문화연구원(이사장 일원, 금산사 주지)은 7월 16일과 17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전주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전주연꽃문화제는 연화장 세계처럼 펼쳐진 연꽃의 향연 속에 다채로운 공연과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먼저 전주시민들의 노래자랑과 게임을 즐기는 '노래가 좋아' '떳다 트로트 연꽃가요제' 예선과 본선 경연, 전주시 생활예술인들의 공연과 국악공연 등이 열렸다.

개회식에 앞서 식전공연으로 진행된 고고장구의 공연은 참석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즐거운 무대가 됐다.

개회식 후에는 불교연합합창단의 합창곡과 성악가들의 공연, 판소리 공연도 이어졌다. 특히 마이산탑사(신도회장 윤복길), 나누우리 봉사단(단장 이재현)과 탑밴드봉사단(단장 천순희), 전주소년원어머니회봉사단(위원장 김도은), 사랑으로행복을붓다복지관(단장 정해자) 등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 총무국장 현진 스님 등 태고종 스님들과 봉사단들은 행사가 열린 이틀간 덕진공원서 비빔밥과 태고떡볶이를 무료로 제공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지화 꽃만들기, 부채 수묵화 그리기, 연꽃컵등 만들기, 다도체험, 전통파 시음회, 염주만들기, 풍선아트, 바디페인팅 등의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또 투호, 제기차기, 굴렁쇠굴리기, 줄넘기 등의 전통놀이 체험행사장도 운영됐다.

개회식에서 우리문화연구원 이사장 일원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덕진공원은 1080년 후백제대에 전주의 기운이 북서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못을 만든 데 연원이 있다. 전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며 "진흙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는 연꽃의 청아함처럼 전라북도민의 마음도 항상 평화롭고 청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금산사 부주지 원혜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연꽃은 자신의 능력으로 생태계에 생명을 불어넣고, 자신의 몸 어느 한 곳도 버리는 부분이 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시하는 꽃이다" 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심성이 연꽃의 향기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축사를 통해 "전주시민이 여가생활을 즐기는 이곳 전주시 중심가에 위치한 덕진공원에서 연꽃을 주제로 시민 한마당이 펼쳐졌다. 행사를 주관한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틀간 펼쳐진 연꽃문화제 기간동안 약 3만 명의 시민이 덕진공원을 찾아 다양한 체험활동과 공연을 즐긴 것으로 추산된다.

전북불교대학 여름방학 특강개최

7월 17일, 강건기 초대학장 강연



사단법인 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2022년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했다.

7월 17일 전북불교대학 4층 큰법당에서 열린 이번 특강은 '모든 사람을 예경하라'를 주제로 강건기 초대학장(전북대 철학과 명예교수)이 진행했다.

강건기 초대학장은 특강에서 〈장아함경〉을 인용해 "모든 방위에 예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면 천상에 태어난다"며 "탐진치 삼독 중 탐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시가 중요하고 무재칠시(無財七施)라 재산이 없더라도 남을 찬탄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3년만에 재개된 여름방학 특강에는 사)부처님세상 백준기 이사장을 비롯해 전북불교대학 학장 이창구, 초대학장 강건기, 부학장 이지복 · 신용표, 전주 대광사 지정 스님, 김명심 前 전북불교대학동문회장, 태기준 전법사회장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강건기 초대학장은 1966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68년 태국 왕실 초청으로 방콕으로 건너가 남방불교를 연수했다. 1979년 뉴욕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1981년부터 전북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역임 2006년 정년퇴직 후 명예교수로 있다. 1988년에는 전북불교대학을 설립 2006년까지 초대 학장직을 역임했다.

한편 전북불교대학은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시민과 학인들을 위한 방학 특강을 1~3차례씩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로 3년간 방학 특강을 진행하지 못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관,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지역 어르신 240명에 보양식 지원



고창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이 초복을 맞아 삼계탕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7월 15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앞으로 다가올 무더위를 어르신들이 거뜬히 이겨내시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 행사서는 복지관을 방문한 어르신 160여 명과 지역 저소득 어르신 80명에게 삼계탕이 배달됐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매년 맛있는 삼계탕 한 그릇이 내 마음과 몸에 든든한 보양식이 되었다"며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고창군노인복지관장 대원 스님은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 원기회복하셔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필요한 부분을 살피며 나눔과 상생의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복지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고창푸드마켓과 선운기초푸드뱅크 후원으로 여름용 덴탈 마스크를 전달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도 서평원, 경내 산신상 점안



청도 서평원(주지 지엽)은 7월 17일 경내에서 산신상을 점안했다. 봉안 점안식에는 증명법사인 정일 스님과 정휴 스님이 참여했으며, 혜언 스님의 집전으로 의식이 진행됐다. 점안식에는 소평원 주지 지영 스님과 홍익대도원 백공 스님, 서정도 교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정일 스님은 "인연있는 사부대중들이 이번 산신상 봉안 공덕으로 화목하고 모든 일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소중한 인연들의 평안과 치유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서평원'은 산세가 수려한 청도군 금천면에 소재한 관음지장약사도량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봉선사가 동국대 일산병원과 MOU를 맺고 승려복지에 한걸음 나아갔다.

봉선사 · 동국대일산병원, 건강검진 협약

교구 승려복지회서 전액 부담
초격 스님"의료복지 토대구축"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가 교구 재적스님 모두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동국대일산병원과 협약을 맺고 교구 승려복지회가 건강검진 비용 전액을 부담키로 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의료복지가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초격)는 7월 19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병원장 권범선)과 '봉선사 스님 건강검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봉선사 교구 승려복지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향후 교구 재적스님 280여 명에 대해 2년마다 무료로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강검진비용은 봉선사승려복지회가 전액 부담한다.

교구 승려복지회가 자체적인 승려복지기금을 적립해 교구 전체 재적승을 위한 의료 ·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스님들의 건강 증진과 수행 · 포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종단에서 설립한 동국대일산병원이 마치 내 집 뜨락 안에 있는 봄꽃처럼 많은 스님이 찾고 향기로운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고자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선운사는 7월 16일 윤명대선사 39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선운사, 윤명 스님 39주기 추모재 봉행

7월 16일 경내 성보박물관서 진행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초대 주지였던 남곡당 윤명 대선사 39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7월 16일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 봉행된 이날 남곡당 윤명 대선사 추모재는 영단 삼배, 행장소개, 직계 상좌 및 손상좌스님들의 분향 헌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국장스님들의 헌향, 말사 주지스님들의 헌향에 이은 입정, 공지사항, 회향삼배의 순으로 진행됐다.

남곡당 윤명 스님은 1931년 장성 백양사에서 영호 스님을 은사로 만암 스님을 계사로 득도했다. 윤명 스님은 1934년 만암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이후 1963년 불교정화운동으로 격렬했던 비구 대처 양측이 화합하는 데 주력했다. 총무원 재무부장, 교무부장, 조계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1966년 초대 24교구 선운사 주지 소임을 맡아 선운사 천왕문과 대웅보전, 도솔암을 중창, 1983년 세수 73세 법납 54세로 선운사에서 입적했다.

이날 추모재는 남곡 스님의 문손 재곤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원로 대우 스님, 범여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등 선운사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한편, 선운사는 이날 오후 임인년 하안거 포살법회도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